

일기연구를 통한 간호대학 온라인강의 학습정서 탐색 연구

이나경^{1*}

¹청암대학교 간호학과

Exploring Learning Emotions for Online Lectures of Nursing College Learners: Through diary

Na Kyoung Lee^{1*}

¹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수강방식의 변화를 맞은 간호대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경험에 대한 학습정서를 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하고자 수행하였다. 목적적 표집법에 따라 4년제 간호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12월 동안 일기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4개의 주제모음과 17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도출된 주제 모음으로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감', '나 자신을 탓하게 됨', '안정된 수업환경 조성이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 '발전적 인간관계 형성이 없음으로 인한 무력감.'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arning emotion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changed their course due to COVID-19 through online lectures through dia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0 from 20 four-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into 4 themes clusters and 17 sub-themes. Derived themes confirmed that 'anxiety due to confusion about online lectures', 'I blamed myself', 'frustration due to difficulties in creating a stable class environment', and 'feeling of helplessness due to lack of developmental human relationships.'

Key Words

Coronavirus 19 (COVID-19), Diary research methods, Nursing college education, Online lecture,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유발시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는 접촉격리가 주요 질병의 차단 방법으로 권고되어, 교육부는 학생과 교육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목적으로 개학과 개강을 동시에 연기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1]. 이러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198교와 전문대학 136교가 예정된 개강을 2회 연기하였다. 그러나 COVID-19

의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게 되어, 학교 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도록 권장되었다[2]. 이에 교육부에서도 지연되는 학사일정의 대응 방안으로 대학의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 재택수업으로 온라인 강의 방식을 전환하는 교육 지침을 각 대학에 권고하였다[3].

이러한 변화에 있어 간호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간호대학은 인간, 환경, 건강, 간호라는 메

*Corresponding author: Na Kyoung Lee(Cheongam College)

Tel: +82-61-740-7214 Email: dhlqndls0@naver.com

Received June 07, 2021

Revised June 30, 2021

Accepted July 05, 2021

타페러다임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돌봄을 위한 현장 전문가 양성을 주요 공통의 학습 목표로 삼고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이로 인해 간호대학 내 강의 방식은 이론과 실습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다. 실습교육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교육은 집중적 지식전달을 위한 집약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4]. 이러한 특징에 따른 간호학의 강의에 있어 인간을 중심에 두는 대면 수업 방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COVID-19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간호대학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게 되었다[5]. 간호대학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간호대학에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마다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였으며, 비대면 실습 교육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6].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라인 강의 학습자들의 의견은 일부 편파적인 시각에 의해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다. 언론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일회성의 온라인 강의 사건에 대하여 회화화하거나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로 강의의 전반에 대해 비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7]. 이러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실제 간호대학 학습자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습정서(academic emotion)는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형성된 정서이다[8]. 이는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희망, 자신감, 수치심, 분노, 지루함, 불안, 절망감과 같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9]. 이러한 학습정서는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 기억, 의사결정 등의 주요한 학습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10]. 따라서 학습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

요하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학습과정과 학습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11]. 또한 학습자의 학습정서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원활한 수업 과정과 수업의 지속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정서를 탐색한 연구들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학습 도구 전략으로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 경우로 현 시점의 온라인 학습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해 자발적 동기 없이 진행된 온라인 강의 학습 환경에서 간호학과 같이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는 복합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선행연구와는 차별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대학뿐 아니라 실무를 바탕에 둔 유사한 복합적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계열의 학제 내에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파악하는데 있어 일기는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특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하기 어려운 감정과 생각들은 일기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12]. 일기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상황을 잘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기 연구 방법을 통해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 학습자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한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 학습자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간호대학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일기연구 방법

일기는 독자적 장르로, 형식과 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록자가 어떠한 압박이나 부담 없이 자신

의 생각, 느낌, 사실들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도구이다[14]. 일기연구는 진행 중인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자가보고 도구인 일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다. 이러한 일기연구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과정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 과정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들의 맥락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14]. 일기연구는 특히 사실적 측면이 사용자 중심으로 해석되거나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 탐구에 가치가 있다.

특히 일기의 특징인 비밀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서술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밀성으로 인해 일기연구는 조사 연구에서는 얻기 힘든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일기의 특징은 전복성이다. 전복성은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을 뒤집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담론이 아닌 특정한 담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보자면 일기를 활용하여 얻어진 개인의 담론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 될 수 있다[13]. 일기연구는 개인과 일상의 다층적 관계망, 그들이 구성하는 맥락의 상호작용과 요소들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시 개별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일기는 변화되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자의 일상생활과 내면세계가 가장 근접한 '날 것' 그대로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다[15].

간호학에서도 일기는 학습의 도구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실습의 영역에서 성찰일지나 감사일기라는 형식으로 일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간호학에서 일기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의 방법은 학습자의 측면에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교수자의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준다[16]. 특히 일기를 기반으로 하는 성찰일지를 활용한 수업설계는 자기주도 학습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교수학습 방향으로 제안된 바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정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일기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고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2 학습정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서는 일으키는 자극을 중심으로 다양한 느낌, 독특한 사고,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태나 행동 경향의 범위 등으로 정의된다[18]. 학습에 대한 정서는 학습이 자극원이 되어 유발된 정서를 의미한다[8]. 동일한 정서라도 상황이나 맥락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학습 정서의 평가요소는 기대와 가치, 통제감, 학습목표, 교수 학습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들어서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의 역할과 기능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의 총체적이고 질적인 면을 반영하는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9].

학습정서의 통제가치이론 모형에 따르면 정서의 인지적 기제인 상황적 의미, 관심사, 현실성, 상대적 비교, 결과 고려를 거쳐 정서로 표출되는 과정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서, 인지, 동기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학습자는 학습정서 내에서 학습자 개인의 관심사나 현실성, 비교, 습관화 등과 같은 연결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 요소들이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이끌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21]. 학습자는 보통의 학습상황에서 20여 가지의 정서를 경험한다. 특히 학습과정은 자신과의 상호작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은 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며 정서지능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22]. 따라서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상황에서 학습자 경험의 본질에 근접한 정서적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상황에서의 정서는 모든 과정에 편재되어 존재하며 본격적인 사고의 개입 없이 즉각적이고 총체적으로 학습의 질적인 측면을 지각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정서는 교수자가 학습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고, 학습자 지원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알게 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교수학습법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자발적인 동기 없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를 맞이한 간호대학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개별적 학습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의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교수 학습법을 설계하는데 기초자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정서는 학습성과의 예측변인이자 수업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3]에 따라 본 연구에서 온라인 상황에 따른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정서의 긍정적 유도를 위해 팀기반 학습을 제안한 연구가 있으며[2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이 긍정적인 학습정서를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5].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 이를 긍정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탐색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된 간호대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일기 연구 방법론을 통해 시행된 질적 연구이다.

3.2 연구 질문

이 연구의 주요 질문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경험한 일과 그 느낌은 어떠했나요?”이다.

3.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의 참여자는 COVID-19 가 팬데믹으로 선포된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간호대학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목적적 표집법에 따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

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윤리승인회의 허가를 득한 이후 온라인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모집된 대학생들은 총 26명이었으나 학년 별 중복인원이 많은 경우의 대상자를 배제하고 총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수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포화를 위해 필요한 표집 수로 제시된 9-24명의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26].

3.4 자료수집 방법

참여자의 일기 수집은 COVID-19라는 상황과 참여자의 소재지가 산발적인 지역으로 개별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의 구글(Google) 문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였다. 자료의 포화 시점은 작성된 일기의 주요 내용이나 핵심 주제가 2회 이상 반복되어 기술되는 때로 보았다. 일기의 내용은 연구자가 온라인 강의라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회의 일기 작성 시 적어도 10줄 이상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전 온라인 화상 채팅을 이용하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기 작성 양식의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참여자의 일기 서술 문장 방식은 별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표준어휘가 아닌 신조어나 줄임말은 자제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최종 작성한 일기의 내용이 온라인 강의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다른 주제로 작성된 경우는 회신하여 재작성 하도록 요청하였다. 참여자의 감정에 대하여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인 질문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사건과 느낌을 질문하여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분석이나 내용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Kahneman et al. (2004)의 일일 활동 분석법[2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이전에 작성한 일기 내용을 기반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여 추가 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5 자료분석 방법

연구의 자료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

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자 할 때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부터 단순히 단어를 모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범주와 주제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 중 전통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탐구하였다.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탐구적인 방법이다. 특히 이 방법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적인 인식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8].

전통적 분석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주요한 탐색 질문으로 얻어진 일기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핵심사고와 개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여, 자료를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코딩된 자료의 관련성, 차별성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시 범주를 분류하였다. 그다음 단계로,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라벨링을 거치고, 주제의 핵심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코드와 의미 있는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고찰하여 주제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였다.

3.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평가기준인 신뢰성,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29]. 먼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현상을 충실하게 해석하기 위해 일기를 수집하는 즉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의미를 본질에 다가가도록 확인함으로써 신뢰를 높였다. 이후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가진 인식 그대로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일기를 반복해서 읽었다. 연구자는 분석한 자료에 대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와 서로 의견을 논의하고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음미하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적용성을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환경에 있는 온라인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 2인에게 연구 결과를 읽도록 하여 그 정도를 검증받았다.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의 자문 및 검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가 맥락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받음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최대한 관련성이 없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거리두기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3.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전에 C대학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CA17-201027-009-01)을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연구 참여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온라인에 연구 참여자 공고문을 게시하여, 다양한 소재의 지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참여자는 배제하였다. 모집된 참여자에게 일기 수집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뒤, 동의서에서 명을 받았다.

본격적인 연구 시작 시에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다시 설명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참여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후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준수할 것임을 설명하고, 분석된 자료에서 참여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 신상을 이니셜화하여 익명성을 유지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이 종료 후에는 참여자에게 개별로 소정의 선물과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4. 결과

4.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명이다. 목적적 표집에 따라 학년 별 참여자의 인원을 25%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9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19세부터 4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평균 24.15세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60%가 무교였으며, 온라인 강의의 수강 도구로는 노트북이 65%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수강 장소로 가정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Item	range	ratio(%)
Age	19-29yr	90
	30-39yr	5
	over 40yr	5
Gender	Female	90
	Male	10
Religion	Atheism	60
	Christian	20
	Catholic	5
	Buddhism	5
Online learning tools	Notebook	65
	Smart phone	15
	tablet(tab,pad etc)	15
	Personal computer	5
Online learning place	Home	60
	Dormitory	10
	space like a cafe	20
	PC room	5
	College	5

4.2 내용분석 결과

일기를 통해 내용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주제모음과 17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Table 2].

4.2.1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

연구의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의 교수자의 강의 역량에 대하여 뚜렷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교수자와 그렇지 못한 교수자의 차이와 온라인에 공개된 강의와의 비교를 통해 격차를 체감하며, 본인들의 학습결과가 이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Table 2] Result of content analysis

[표 2] 내용분석 결과

category	themes cluster	sub themes
negative of internal attribution learning emotion	Anxiety due to confusion about online lectures	They feel a gap in the instructor's teaching level, and self-learning is difficult. It is burdensome because of the large volume, and I am anxious because I do not know how other students are learning. I'm embarrassed by the online practice and I'm worried that I'm not sure if I'm doing well.
	to blame myself	I listen to the class comfortably, but the feeling of frustration increases. I always lose in a fight with myself. After the lecture starts, I lose interest and push myself away. I am easily tempted by factors that interfere with class and blame me. I regret giving up my grades and finding myself ignoring lectures. He regrets coming to the Department of Nursing, but blames himself for the irreversible reality.
	Frustration due to difficulties in creating a stable learning environment	Each lecture has a different teaching method, so if you do not follow it, you will get frustrated. Accidental situations often occur during class, making it difficult to concentrate and panic. I feel depressed because my family or acquaintances keep getting involved in online classes. If you cannot access lectures due to technical problems, it is upsetting and inconvenient. During the lecture, I have to do other things with the pop-up window, and because of that, I sometimes don't know the content of the class at all, so I get frustrated during the exam.
	due to lack of relationships sense of worthlessness	Communication with the instructor is cut off compared to before, and a sense of distance is felt. It is awkward and uncomfortable because there is little interaction with classmates. Because there are no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y feel a sense of worthlessness in school life.

기존에 개발된 강의 콘텐츠인 MOOC와 같은 도구들을 수업의 보조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기존 대면식 강의보다 학습자가 소화해야 할 학습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났으며 자가 학습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다. 더불어 간호실습교육에 있어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매체들은 보기만 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간호술기 성취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으며, 대면식 실습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되던 과정이 없어, 타 학생들의 수준과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어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간호학의 특

성을 느끼기 어려워 학과선택에 대한 장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4학년의 경우 곧 졸업하고 투입될 임상 현장에서 실무를 시행할 자신감이 낮다고 표현하였다. COVID-19 확진자 동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따라 학사일정 또한 변경이 있어 불안과 혼란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강의가 또 바뀌었다. 교수님이 좋은 강의를 많이 찾아서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전해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다 중요하다고 하니 하루 종일 앉아서 들었는데 혼란스럽다. (학습자 1)

온라인 강의인데, 교수님이 책을 읽어주신다.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목소리가 랩처럼 느껴진다. 수업 내용이 까마득하게 들린다. 이제 곧 시험 볼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불안하다. (학습자 7)

실습을 한 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간호사가 된다고 하니 불안하다. 정맥주사하기도 겁이 나는데, 환자한테 직접 하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하다. (학습자 3)

4.2.2 자신을 타하게 됨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밀리는 강의 분량과 학습 성취 정도가 낮은 데 대하여 초기에는 다른 요소를 거론하다가 결국 자신의 탓으로 귀결하게 경향성이 짙어졌다. 초반에는 강의를 듣고자 노력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를 외면하고 다른 상황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유혹에 약한 자신을 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간호학과를 선택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내가 싫어진다. 중간고사도 망했는데, 공부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밀리는 양만 늘어간다. 강의를 재생시켜놓고 자꾸 유튜브를 본다. (학습자 9)

강의를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니까 자버렸다. 잠깐 잔다는 게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시험까지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옆에 다른 친구들도 없으니까 긴장감이 안 생긴다. 그냥 내가 싫다. 공부해야 하는데, 간호학과 온 것을 후회하는 생각, 다른 애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만 이어진다. (학습자 18)

4.2.3 안정된 수업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

참여자들은 강의마다 다른 운영방식으로 인해 평가체계에 대하여 혼란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변경된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그 분위기에 편승 된다고 하였다. 수업 중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여 집중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였다. 노트북에 강의 창을 띄운 상태에서 또 다른 팝업창을 통해 쇼핑을 하게 되거나 SNS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집중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 중에 부모님이 불쑥 들어오거나 가족 내 구성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학습에 대한 몰입 정도가 낮으며, 무선통신망 연결(wifi) 문제나 로딩이 걸리는 경우 수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겹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관련 표현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시험 방식이 바뀌었다고 공지가 왔다. 애들이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강행한다고 한다. 애들 소리를 들으면 그제 맞는 거 같고, 교수님 소리를 들으면 그제 맞는 거 같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다. (학습자 11)

온라인 강의 중에 자꾸 동생이 들어오고, 엄마는 내 강의가 궁금한지 같이 들어본다. 신경이 쓰여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동생도 온라인 학습 중이라 결국 우리 둘 다 비슷하다. 엄마는 강의 듣는 것보다 밥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꾸 강의 중에 불쑥 들어온다. 밤늦게 녹화된 강의 영상이나 다시 들어야지 생각하는데 밤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긴다. (학습자 4)

온라인 강의에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줌에서 비번 넣고 코드 입력하는데 생각보다 진땀을 빼고, 온라인 도구들이 다 영어로 되어있어서 일

단 처음 보는 것은 다 놀러보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서 수업 시작하면 지치고, 교수님이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주면 좌절하게 된다. (학습자 5)

4.2.4 인간관계 부족으로 인한 무(無)가치감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 평소의 학교생활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 내에서 평범한 일상들을 공유하는 사건이 없어 학교에 대한 동질감이나 소속감이 희미해진다고 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수업 일정에 쫓겨 교수자와 소통이 거의 없으며, 소통을 하더라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우선통화로 간략하게 하는 대화만 전부라고 하였다. 대면으로 일대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수자나 학우들과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은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업 일정이 개별 학과 중심의 교과목으로 형성되어 있어 타학과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1학년들은 대학생활의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하였으며, 다른 학년들의 경우도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생활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표현하였다.

온라인 강의 스케줄이 빡빡하다. 시간 외로 해야 할 분량이 배로 늘어서 화장실가거나 밥 먹기도 힘들다. 교수님도 녹화강의를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하기 어렵고 소통이 없다. (학습자 1)

교수님이 녹화수업을 하면 대화는 없는 거 같다. 토목달 인강 듣는 느낌이라, 교수님도 EBS 강사처럼 느껴진다. (학습자 14)

과대의 공지사항 외에는 반 애들이랑 연락할 일이 별로 없다. 전에는 점심 메뉴나 팀 과제나 약속 정하느라 연락하기도 했는데, 다들 온라인 수업에서 댓글로만 소통해서 주목받게 되니까 댓글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달게 된다. (학습자 6)

1학년 신입생이라고 모집해서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동아리 회비가 아깝다. 한 번도 모임을 안했는데, 회비만 냈다. 타 학과 학생이랑 하는 연합동아리인데 만난

적도 없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다. (학습자 2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일기 연구 방법을 통해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 대학 학습자들은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부귀인의 학습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에서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의 운영에 있어 잦은 변경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 당황과 혼란을 주요한 감정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연구[30]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를 파악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31]. 강의의 갑작스러운 변경, 수강에 대한 정보부족, 온라인 강의 접근 전달에 대한 어려움, 강의의 품질과 같은 문제들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곧 불안으로 연결된다. COVID-19 이전의 온라인 강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습 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보조적 학습방법으로 여기며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32]. 초기의 온라인 강의는 학습자들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그들의 주체적인 의지로 선택되어졌다. 자발적인 선택을 기반에 둔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는 인적·물적 지원이 풍부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우수할수록 수업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33].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자의 온라인 강의의 학습상황은 COVID-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를 접하게 되어 그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가 부족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제공자나 수강자 모두 물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활용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총체적 상황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부정정서가 우세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간호 대학생들

의 학습 동기는 학습몰입과 학습 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참여자들 또한 낮은 학습동기로 인해 학습몰입이 형성되지 않고[34], 이러한 동기부족이 곧 부정적 학습정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에 의해 지각된 온라인 강의의 교육품질이 대학생의 참여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35]에 비추어 볼 때, 교수자 개별의 수업 내용과 도구 활용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간호학과 내 일원화된 교육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 일정 시행 전, 먼저 간호대학 학습자들의 학습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기부여 전략과 온라인 강의의 혼신을 줄이기 위한 대학의 물적·인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탓하게 됨’에서는 참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자책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을 내부로 귀속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적 동기의 부족은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지속을 이끄는 자기규칙화 전략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다[36]. 본 연구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대한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학과선택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박은화[3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학습자에게 있어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강의의 수강은 일종의 학습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이러한 참여자들의 부정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위기의 상황을 민감하게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략으로 학습자가 학습정서를 긍정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대학의 노력이 후속되어야 한다.

‘안정된 수업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에서 참여자들은 여러 방해 요인으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를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문제를 언급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학습 환경은 학습의욕을 저하시킨다[37]. 이는 COVID-19 상

황에서 온라인 학습참여의 장소 의존성 역설을 설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8]. 적절하게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부재는 학습동기의 저하와 연결되고, 이는 부정적 학습정서로 이어진다. 또한 준비되지 못한 환경의 범위는 단순한 기계 활용에서 온라인 도구의 적용까지 폭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개인마다 차이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과 온라인 접근성은 혹자에게는 학습의 시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39]. 또한 청각과 시각적 활용도구의 미흡한 작용 상태와 동영상 강의의 자료 제공방법과 같은 문제들도 수업환경의 일환으로 포함해야 하며, 학습자들은 세부적인 요건들에서도 어려움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40].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실습 교육 이후, 임상 적용에 대하여 무력감과 좌절감을 표현하였다. 이는 온라인 간호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 임상실습간호교육의 효과가 높으며 학습 동기나 자기 주도 학습에 준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41]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서연희와 엄미란의 연구[41]에서 보조적 도구로 온라인 실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과 본 연구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실습 교육을 수행한 것의 차이로 기인한다. 간호 교육은 인간 중심으로 직접 수행하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기반이 되는 핵심기 본간호술과 같은 실습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각화된 교육만으로 자기행위로 구현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기 행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주요도구로 활용하기 어렵다.

‘발전적 인간관계 형성’이 없음에서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간적인 관계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대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신뢰는 직접적인 학습동기와 대학 생활의 적응 및 수업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6,42]. 온라인 강의에서의 부족한 상호교류와 이로 인한 신뢰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학습동기의 부족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43]. 특히 온라인 강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용자의 고립감, 상호 의사소

통의 미흡으로 인한 불안감, 시스템 환경으로 인한 분노와 좌절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를 비추어보았을 때[44], 온라인 강의 상황이 주는 학습자의 부정정서는 학습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각성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보아 온라인 학습에서의 학습자들의 주요한 부정적 학습정서의 원인은 학업의 전달 시스템, 환경, 방해요소, 자기 주도 학습의 실패, 상호 교류의 부족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분야의 학자들이 비대면 교육사회의 안정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5]. 이를 위해 쌍방향 중심 강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수 전략의 설계에 있어 피드백과 상호작용 과정이 핵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6]. 특히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학습자의 온라인 강의 경험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상호작용의 부재와 학습동기 부족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상호작용과 학습동기 요인은 결정적 요소로 확인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47]. 이는 학습자 참여 방식의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교류 상황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48]. 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서도 교수자의 실시간 피드백은 교수자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9], 실습 꾸러미 제공과 같은 학습자가 실제 술기를 적용하는 과정을 교수자가 피드백 하는 방식의 한층 개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화하는 방향성의 구축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또한 참여자가 수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법 설계 방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질문 중심의 교수법[50]이나 거꾸로 수업 사례[51]와 같은 참여자 중심의 교수법의 설계가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COVID-19로 인하여 간호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통합적 측면에서의 교육에 대한 성찰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다. 미래의 대학은 플랫폼 중심의 융합대학을 추구하며, 혁신적 기술을 도

입하여 지식과 기술, 창업과 수익 창출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52]. 따라서 간호대학도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서를 반영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청사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들의 긍정적 학습정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제도적인 방법 모색을 통해 간호교육을 재구성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Academic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New Coronavirus (University).
- [2] Hot News-General University. Extended by one week until April 5 (Sun) for "Stay-at-home (online) classes" with 'COVID-19 long-termization' 20, March.
- [3]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03-26 (Thu) Tidal Reporting Data] Started preparing for remote lesson-based preparation to prevent learning publicback.
- [4] M-W. Kim, J-M. Park and A-K. Han. Analysis of Curriculum of 4-year Nursing School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 414-423.
- [5] C-K. Lee and J-H. Ahn.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2 pp.142-152.
- [6] M-I. Kim, M-J. Kim, Oyein, Integer Yeon. 'The impact of replacing online courses due to COVID-19 affects the learning dynamics of nursing students, the interaction of professors and student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research*. Vol.20 No.17 pp.519-541, 2020.
- [7] J-Y. Kwon, G-S. Lee and H-J. Yoon. 'Comparative analysis of information use and use of information equipment in the academic and daily lives of four generation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Information*

- Management*. Vol.30 No.2, pp.269–295, 2013.
- [8] R. Pekrun, T. Goetz, W. Titz, and R. P. Perry,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7 No.2 pp.91–105, 2002.
- [9] B. C. Patrick, E. A. Skinner, and J. P. Connell, "What motivates children's behavior and emotion? Joint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utonomy in the academic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5 No.4 pp.781–793, 1995.
- [10] K. O'Regan, 'Emotion and e-learning.'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Vol.7 No.3, pp.78–92, 2003.
- [11] I-S. Song and J-H. Choi, 'Exploring the Domain issue of Academic Emotions: A comparison of domain generality, domain specificity and domain complexity.'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11 No.4 pp.227–243, 2011.
- [12] C-S. Kwak, Theory and theory of diary research Mainly on western cases. *Cognito*, Vol. 85 pp.113–142, 2018.
- [13] J. Lacan, *The Language of the Self: The Function of Language in Psychoanalysis*, trans. with notes and commentary by Anthony Wilde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8.
- [14] Bolger, Niall, Angelina Davis, and Eshkol Rafaeli. "Diary Methods: Capturing Life As It Is Live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4 pp.579–616, 2003.
- [15] B-W. Jung, Ryuta Itagaki. *Traditions and modernity, colonies and countries seen through diaries*, Call publishing. Seoul. May 06, 2013.
- [16] E-J. Lee, H-O. Kim and E-A. Park,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 21 No.5 pp.279–291, 2021
- [17] N-R. Heo and J-Y. Kim, 'Communication Practicum Experience among Nursing Students: Reflective Learning Approach.'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17 No.19 pp.311–333, 2017.
- [18]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Nooks. 1995.
- [19] C. Sanson, and D. B. Thoman, 'Does what we feel affect what we learn?: Some answers and new questions.' *Learning and Instruction*, Vol.15 pp.507–515, 2005.
- [20] R. Pekurn,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Assumptions, Corollar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8 No.4 pp.315–341, 2006.
- [21] M-S. Kim, 'Processes of Emotional Experiences in Online Discussions: Emotional Changes through Interacting with Other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Vol.22 No.4 pp.697–722, 2009.
- [22] S-W. Choi, 'Conflict and Team Effectiveness in College Team-Bas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oderator.'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21 No.9 pp.389–401, 2021
- [23] M-J. Chei, J-Y. Le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structional Quality, Academic Emotions, Perceived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Offline and Online University Lectures.' *Education and Information Media Research*, Vol.23 No. 3 pp. 523–548, 2017.
- [24] W-K. Sung, 'Understanding Learning Emo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rom Team-oriented Learning.' *Humanities Society 21*, Vol.11 No.4 pp.1079–1094, 2020.
- [25] M-Y. Min, Y-J. Shin, 'An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Change the Science Academic Emotion of Elementary Students in Storytelling Classes Using Fairy Tales Connected to Exhibits in Science Museu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Vol.43 No.3 pp.300–317, 2013.
- [26] M. M. Hennink, B. N. Kaiser, and V. C. Marconi, 'Code Saturation Versus Meaning

- Saturation: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27 No.4 pp.591–608, 2017.
- [27] D. Kahneman, A. B. Krueger, D.A. Schkade, N. Schwarz, and A. A. Stone,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Vol.306 No.5702 pp.1776–80, 2004.
- [28] H-F. Hsieh, and S.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9 pp.1277–1288, 2005
- [29] J.M. Morse, M. Barrett, M. Mayan, K. Olson, and J. Spiers, 'Verification Strategies for Establishing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pp.13–22, 2002.
- [30] W-S. Hwang, S-J. Park, 'Analyze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issues using big data.' *Education Development*. Vol.40 No.2 pp.617–636, 2020.
- [31] E-K. Park, 'Perception of learner anxiety towards online college English classes during COVID-19.' *Multimedia Language Education*, Vol.23 No.3 pp.320–338, 2020.
- [32] J-W. You, H-J. Kim, and S-H. Park,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e-Learning Academic Emotions Scale(e-AES).' *Open Education and Research*, Vol.20 No.3 pp.19–44, 2012
- [33] S-C. Lee, and J-A. Kim, 'Factors that affect student satisfaction with online courses.' *Research on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Vol.36 No.2 pp.115–138, 2018
- [34] J-G. Lee, W-J. Kim, and J-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gave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1 No.11 pp.412–419, 2020.
- [35] H-H. Jeong, 'Exploring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ontinuous User's Intention of Online Classe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nline Alternative Lectures due to COVID-19.' *Global Creative Leader*, Vol.10 No.4 pp.109–134, 2020.
- [36] E-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Strategies in Online Learn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Vol.34 No.3 pp.229–248. 2020.
- [37] S-S. Joe,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in Overall Distance Learning Situ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ronavirus Anxiety.' *Education and Information Media Research*, Vol.26 No.4 pp.909–934, 2020.
- [38] S-H. Lee, and S-H. Ham, 'University Students' Course Satisfaction During COVID-19: The Paradox of Spatial Limits in Online Learning.' *Open Education and Research*, Vol.29 No.1 pp.71–91, 2021.
- [39] S-H. Kwon, 'A study on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nd the preference of online class typ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21 No.1 pp.1023–1046, 2021.
- [40] J-W. Do, '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Vol.26 No.2 pp/153–173, 2020.
- [41] Y-H. Seo, and M-R. Eom, 'The Effects of Clinical Nursing Practicum Education using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Focused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of Special Unit.'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17 No.15 pp.539–556, 2017.
- [42] M-S. Kang, and K. Lim, 'Structural Analyses on the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Motivation on Learner-instructor Interaction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Learning Environments with e-Learning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Society*, Vol.13 No.11 pp.1014–1023, 2013.
- [43] M. Ainley, 'Connecting with learning: Motivation, affect and cognition in interest

- proces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8 pp.391–405, 2006.
- [44] Cleveland–Innes, Martha, Campbell, Prisca. ‘Emotional Presence, Learning, and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Vol.13 No.4 pp.269–292, 2012.
- [45] D–J. Lee, M–S.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3 No.3 pp.359–377, 2020.
- [46] I–W. Lim, J–Y. Kim, J–W. Hwang, and D–S. Park, ‘Explore teaching strategies for effective non–face–to–face taught at universities.’ *Education innovation research*, Vol.30 No.4 pp.23–54, 2020.
- [47] Y. Noh, and K–K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earner Satisfaction in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Research*, Vol.22 No.3 pp.107–125, 2020.
- [48] E–H. Wee, ‘Non–face–to–face online professor–study practice operation case study in a learning environment.’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21 No.7 pp.585–601, 2021.
- [49] S–H. Lim,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tact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2 No.4 pp.195–205, 2021.
- [50] J–Y. Park, C–H. Woo, ‘The Effects of Lesson with Student–Generated Questions: Based on Flipped Learning Utilizing Massive Open Online Courses.’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17 No.11 pp.283–306, 2017.
- [51] M–K. Lee, ‘Reconstruction of Learning by learner–centered education: Case study on the Geogguocampus.’ *Learner–Centered Teaching Society*, Vol.19 No.1 pp.1259–1282, 2019.
- [52] S–S. Paek,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iberal Arts education and research*, Vol.11 No.2 pp.13–51, 2017.